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타입캡슐을 열어라

2023년 생생문화제 사업 광주·전남 50건 선정
광주, '서원헤드쿼터, 월봉' '동구 달빛걸음' 등
전남, 'Happy 구례향교'·화순'천불천탑...' 등

'신장동 타입캡슐을 열어라', '조선의 도시 나주로 가자', '서원헤드쿼터, 월봉', '동구달빛걸음' 등 2023년 생생문화제 사업에 광주전남에서 50건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내년 지역문화제 활용사업을 발표했다. 모두 410건 가운데 광주전남은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을 포함, 모두 50건이 채택됐다.

이들 사업에는 생생문화제 사업, 향교·서원 문화제 사업, 문화제 여행 사업, 전통산문문화제 활용사업,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이 포함돼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자체를 통해 총 648건이 접수했는데 콘텐츠 우수성, 사업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생생문화제 사업은 지역 문화제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제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신장동 타입캡슐을 열어라', 동구 '오감만족 풍류산책', 북구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V', 서구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제' (곡성), '광양 生生 김 여행·성(城) 돌이기에 피어난 현호색' (광양), '조선의 도시 나주로 가자·기억 말 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 (나주), '의향 답양, 문화제로 만나다·천년 답양 역사문화를 찾다' (담양), '목포 명물 육단이! 근대거리로 마실가다!'·'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목포), '다함께 즐기는 보성여관' (보성),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 (순천),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여수), '하늘 감동 '엄동설한 정개구리'' (장성), '2023 삼시세끼 농악마실' (진도), '평랑의 정신! 팔팔에서 다시 울리다' (해남) 등이 포함됐다.

향교·서원 문화제 활용사업은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와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다. 인문 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광주에서는 월봉서원의 '서원헤드쿼터, 월봉'과 무양서원의 '무양 in the city'가 뽑혔다.

전남은 강진향교와 정약용 유적의 '품성품사 강진향교', 곡성향교·육과향교·덕양서원 '축제 한마당-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 구례향교 'Happy 구례향교', 나주향교·나주목관아·향교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무안향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교', 보성향교 '놀고 배우고 즐기는 보성향교', 여수향교 'Restari! 여수향교', 영암향교 '영암향교에 물들다', 장성향교·백수랑백비 '청림·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문화체험여행' 등이 포함됐다.

문화제 여행사업은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콘텐츠를 야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는 동구의 '2023 광주문화제 여행-동구 달빛걸음'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2023년 나주 문화제 여행-천년의 시간 여행! 빛의 향해를 떠나다' (나주), '목포 문



코로나 발발하기 전인 2019년 열린 동구달빛걸음 모습



정약용이 10여 년간 머물렀던 강진 만덕산 기슭 다산초당.

화제 여행-모던타임즈' (목포), '여수 문화제 여행-진남관 다시 시작하는 100년'이 최종 선정됐다.

전통산문문화제 활용사업은 사찰이 보유한 문화제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전통산사의 문화제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나간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전남에서는 '무위사 아담법석(野叟法席)' (강진 무위사), '화엄삼색' (구례 화엄사),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스토리여행-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나주 불회사), '어서와! 저승은 처음이지?' (보성 대원사), '조계산 천년 산문을 열다' (순천 송광사), '호국사찰 흥곡사, 여수 흥(興)하다' (여수),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 (장성 백양사), '천불천탑, 별을 찾아서' (화순 운주사) 등이 포함됐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고택과 종가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에서는 장덕동 근대한옥, 용아생가, 김봉호 가족의 '광산사계 夢-새 날의 태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더 삶 252 영광생가' (강진 영광생가), '남도 클래식 나주 클래스 남파고택 衣食住休' (나주 남파고택), '전유성과 함께 마술같은 생각의 전환' (곡성 제호정고택·함허정), '이효재와 함께 효자 낳은 전통혼례식' (영광 매간당고택·불갑사 대웅전)이 포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땀한땀 '바느질은 엄마다'

정연두 작가 인문학 강좌, 22~23일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정연두(사진) 작가는 '바느질은 엄마다'라고 말한다. 답양 대덕면 무월마을에 사는 정 작가는 바느질로 글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고 지역에서는 감성공예를 매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연두 작가의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작은도서관 하반기 인문학 강좌 첫번째로 정 작가를 초대해 '바느질 이야기'를 듣는다. 오는 22일과 23일(오전 10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첫날 강좌 주제는 '바느질은 엄마다'이며 둘째날은 '일상을 누비는 삶의 놀이판?'이다. 정 작가는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아닐로그 감성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 작가는 "하반기 가을 인문학 강좌를 통해 수강자들이 그림의 미학을 새롭게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인원은 15명 내외. 회



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양림 프로젝트 장면

양림동서 '정율성음악축제' 열려요

22~24일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 잔디밭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2 정율성음악축제가 열린다. 일명 '양림프로젝트'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 잔디밭.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정율성 선생이 어린시절 보낸 양림동에서 그를 다시 되새기고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금관앙상블 '브래싱'을 비롯해 퓨전국악 '울라', 성악 앙상블 '라루제', 재즈 'SOOF'이 펼쳐진다. 또한 어린이합창 '살레시오

초등학교합창단, 실내악 앙상블 'Ensemble P&S', '라인 콰르텟'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총 7개 팀이 참여해 새롭게 해석한 정율성의 음악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오프라인 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며, 추후에 유튜브 채널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본 공연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야외에서 진행 '양림프로젝트'는 사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율성음악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두가 저마다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있어요"

이성자 작가 '비밀 씨앗' 펴내

'꿈'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렌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터다.

글과 그림으로 만나는 소중한 꿈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가 펴낸 '비밀 씨앗' (고래책방)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싹 트는 꿈과 꿈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다.

작품의 모티브는 '웅기'. 생김새가 투박한 데다 예쁜 것이 없는 웅기는 그림에도 꽃을 품고 싶은 꿈을 꾸다. 주위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을 하던 그늘수목 단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불태운다.

언젠가는 예쁜 꽃을 피워내고야 말겠다는 야무진 꿈을 기다림과 노력으로 전이된다. 꽃 화

분과는 다르지만 웅기만의 모양과 향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선사한다.

이 작가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꽃 역시도 각각의 향기와 모양새는 다르지만 저마다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있다"고 말한다.

글과 아울러 백주현 그림작가의 따뜻하고 평온함을 주는 그림들은 보는 맛을 준다. 글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그림은 모든 이의 꿈은 소중한하다는 사실을 은연중 말하고 있다.

한편 이성자 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우리나라 좋은동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영명이에 빨났다', '입안이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땡땡 날

다!', '손가락 채운게', '주주미 엄마' 등을 펴냈다. 광주교육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동시와 동화를 강의했으며 현재는 이성자 문예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타지로 만나는 '한여름밤의 꿈'

광주시립극단, 22~24일 첨단 쌍암공원 야외무대

광주시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판타지 가족극을 선보인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첨단 쌍암공원 야외무대.

'한여름밤의 꿈'은 연인들의 사랑 속 갈등이 초자연적 힘을 빌어 해결되는 꿈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 상상력이 가장 잘 발휘됐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공연에는 김지훈 광주시립극단 연출가, 19명의 배우와 무용수 등이 함께한다. 러닝타임

은 100분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김지훈 연출가는 "광주시립극단에서 만들어 낼 '한여름밤의 꿈'은 마치 가상현실의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처럼 꾸며 게임과 판타지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쌍암공원 이후에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그라제 축제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11-2759.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